

李奎報의 〈東明王篇〉의 構成樣相과 作品의 性格

孫 政 仁

<目 次>

- | | |
|------------------|---------------|
| I. 머리말 | 1. 民衆의 內容과 意味 |
| II. 〈東明王篇〉의 構成樣相 | 2. 理解의 內容과 意味 |
| III. 〈東明王篇〉의 性格 | IV. 맺음말 |

I. 머 리 말

〈東明王篇〉은 高麗中葉의 代表的 文人인 李奎報(毅宗 22年, 1168~高宗 28年, 1241)가 文學의으로 양성한 의욕과 함께 現實에 대한 투철한 批判精神을 보여주던 26세 때 창출한 것으로, 并序와 아울러 五言의 282句의 本詩와 2210字에 달하는 註로 구성된 우리 民族 最初의 長篇敘事詩이다.

지금까지 本作品에 대한 先學들의 연구는 크게 보아 두 가지 방향에서 전개되어 왔는데, 敘事文學의 측면에서의 연구와 歷史·社會的 측면에서의 연구가 그것이다.

敘事文學의 측면에서의 연구는 作品의 構造의 分析研究와 類型的 研究에 集中되어 있다. 張德順의 東明王說話의 分析과 外國說話와의 對照¹⁾, 朴斗抱의 〈東明王本紀〉의 復原과 東明王說話의 性格考察²⁾ 및 本作品의 民族敘事詩로서의 條件檢討와 後代 繼承相의 살필³⁾, 徐首生의 民族敘事詩를 읊은 大雄篇敘事的 史詩로서의 注目⁴⁾, 申用浩의 作品의 形式과 內容의 展開를 통한 作品分析⁵⁾, 李金喜의 《三國遺事》 등에 수록된 東明王說話와의 內容比較와

- 1) 張德順, 〈英雄 敘事詩「東明王」〉, 《國文學通論》(新丘文化社, 1960), pp. 325~350.
- 2) 朴斗抱, 〈民族英雄 東明王說話考〉, 《國文學研究》第1輯(曉星女大 國語國文學研究室, 1968), pp. 5~47.
- 3) ———, 〈民族敘事詩의 傳統〉, 《陶南 趙潤濟博士 古稀紀念論叢》(同刊行委員會, 1976), pp. 53~85.
- 4) 徐首生, 〈英雄敘事詩의 雄作 東明王篇〉, 《高麗朝漢文學研究》(螢雪出版社, 1971), pp. 132~135.
- 5) 申用浩, 〈李奎報의 東明王篇 研究〉, 《語文論集》第21輯(高麗大學校 國語國文學研究會, 1980), pp. 55~60.

創作動機를 통한 作品의 性格考察⁶⁾, 金烈圭의 本作品의 通過儀禮와의 상관성⁷⁾ 및 三代記性에 대한 考察⁸⁾, 朱鍾演의 本作品을 韓國敘事文學의 한 原型으로 보고자 하는 작업⁹⁾ 등 일련의 論文들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기는 하지만, 주로 東明王說話에 치중한 나머지 作品의 實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限界가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歷史·社會의 측면에서의 연구는 當時의 時代의 背景을 고려하면서 并序에 나타난 創作動機의 해명을 통해 作家意識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이점에 대해 몇몇 歷史學者들에 의해 단편적으로 언급된 것까지를 고려하면, 李佑成의 民族自主意識의 發露¹⁰⁾, 金鎮英의 民族的 자부심과 그에 대한 욕구¹¹⁾, 趙東一의 민족적 전통에 대한 새로운 평가¹²⁾, 金哲竣의 民族的 歷史意識¹³⁾, 金泰永의 자국의 역사전통에 대한 강렬한 自負意識¹⁴⁾, 河炫綱의 고구려의 제승자라는 역사제승의식¹⁵⁾, 朴菴熙의 國家意識의 表出¹⁶⁾ 등 몇 갈래의 相異한 見解가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作品自體에 대한 客觀的 認識이 결여된 채 어느 한 쪽만을 살피는 데 그치고 말았다는 점에서 그 일차적 限界가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하면, 朴性奎의 “文明意識에 의한 민족정신의 發揚이나 國家意識에서 나온 국내의 위태로운 상황극복”¹⁷⁾이라는 견해는 이제껏 어느 한 쪽에 傾倒되어 온 相異한 견해를 수렴하고 있다는 점에서 注目받을 만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 견해도 作品 자체에 대한 철저한 分析을 기초로 하지 않고, 歷史意識이라는 측면에서 導出해 낸 것이기에 立論의 타당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6) 李金喜, 〈李奎報의 敘事文學의 性格〉(淑明女子大學校 碩士論文, 1980).

7) 金烈圭, 〈試鍊의 三代記(1)〉《韓國文學史》(探求堂, 1983), pp. 75~85.

8) —, 〈「東明王篇」의 三代記의 問題〉, 金烈圭·申東旭篇《李奎報研究》(새문社, 1986), pp. Ⅲ. 39~Ⅲ. 48.

9) 朱鍾演, 〈韓國敘事文學의 한 原型, 「東明王篇」〉, 같은 책, pp. Ⅲ. 49~Ⅲ. 70.

10) 李佑成, 〈高麗中期的 民族敘事詩〉《論文集》7輯(成均館大學校, 1962), p. 100.

11) 金鎮英, 《李奎報文學研究》(集文堂, 1984), p. 99.

12) 趙東一, 《한국문학통사 2》(知識産業社, 1983), p. 86.

13) 金哲竣, 《韓國文化史論》(知識産業社, 1976), p. 146.

14) 金泰永, 〈三國遺事に 보이는 一然의 歷史認識에 대하여〉, 李佑成, 姜萬吉編《韓國의 歷史認識(上)》(創作과 批評社, 1985), p. 135.

15) 河炫綱, 〈高麗時代의 歷史繼承意識〉, 같은 책, p. 211.

16) 朴菴熙, 〈李奎報의 「東明王篇」詩〉《歷史教育》11. 12합집(歷史教育研究會, 1969), p. 193.

17) 朴性奎, 《李奎報研究》(啓明大學校 出版部, 1982), p. 62.

점이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限界點들을 극복하고 〈東明王篇〉의 作品的 實相을 올바르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접근방법을 새롭게 모색하면서 分析을 深化해 나가야 할 것이며, 作家意識이라는 것도 作品을 떠나서는 無意味한 것이기에 作品 자체에 대한 客觀的 認識을 통해 接近해 나가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本稿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하나의 有機體로서의 作品의 構成樣相을 살핀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本作品의 諸要素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짜여서 산출하는 意味를 추출해 봄으로써 作品의 性格을 해명해 보고자 한다.

Ⅱ. 〈東明王篇〉의 構成樣相

〈東明王篇〉의 實相을 온당하게 理解하기 위해서는 作品 자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作品 자체가 지닌 實相을 파악하기 위한 일차적인 작업은 우선 作品의 전체 構成樣相을 재검토하여 그 構成의 內的 秩序를 발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규보가 東明王의 神異之事를 단지 後世에 전하려고만 했다면, 굳이 詩라는 形式을 고집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天下로 하여금 我國이 본래 聖人之都임을 알도록 하기¹⁸⁾ 위해서는 단순히 史實을 記錄하여 傳達하는 것만으로는 어렵기에, 그 자신이 不信→信으로 意識을 轉換¹⁹⁾한 것처럼 天下의 意識도 不信→信의 상태로 轉換시키고자 하였을 것이다. 그러면서 史實의 믿음에서 나아가, 믿음에 따른 史實의 理解와 再解釋을 통해 天下의 意識을 無知→知, 不覺→覺의 상태로까지 끌어올리고자 한다. 문학의 서술이 역사기술과는 엄연히 다른 점이, 역사적 사실을 재현하는 듯하면서도 其實 그 이상의 것이 되게 하는 작자의 관념적 맥락의 작용에 있다²⁰⁾면, 이규보는 이 점을 인식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東明王篇〉의 構成樣相은 이러한 意圖와 無關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기존의 論著 中에서 本作品의 構成과 관련된 부분을 제시하여 論議의 실

18) 是用作以記之 欲使夫天下 知我國本聖人之都耳, 〈東明王篇〉并序.

19) 然亦初不能信之 意以爲鬼幻 及三復耽味 漸涉其源 非幻也乃聖也 非鬼也乃神也, 같은 글.

20) 黃滄江, 《朝鮮王朝小說研究》(檀國大學校 出版部, 1981), p. 56.

마리를 삼고자 한다.

㉑ 張德順: 이것은 英雄 東明王의 誕生以前の 系譜를 밝히는 序章과, 東明의 출생으로부터 그의 立國・終末까지를 묘사한 本章과 그리고 그의 事業을 계승한 琉璃王의 즉위까지의 經路 및 作者의 所感을 敷衍한 終章의 三部로 구성된 叙事詩이다.²¹⁾

㉒ 李金喜: 緒頭部—中國 上古 諸帝王들의 神異한 誕生 및 治績, 作者의 辯, 解慕漱의 降臨~東明王의 出生, 行蹟部—東明王의 幼年時의 神迹~東明王의 立國, 昇天, 類利의 王位繼承, 評結部—作者의 論評²²⁾

㉓ 전형대: <동명왕편>은 동명왕 탄생 이전의 계보를 노래한 서장과, 동명왕의 출생으로부터 나라를 세우고 동명왕이 죽기까지의 이야기와 유리왕의 계승을 묘사한 본장, 끝으로 작자의 소감을 부연한 에필로그로 되어 있다.²³⁾

㉔ 조동일: 전체적인 구성은 먼저 해모수(解慕漱)를 주인공으로 삼아 동명왕 탄생 이전에 있었던 일을 노래하고, 다음 순서로 동명왕의 출생, 시련, 투쟁, 승리를 영웅의 일생에 맞게 다루고, 끝으로 유리(類利)를 등장시켜 삼대에 걸친 행적을 두루 다 보여주었다.²⁴⁾

이처럼 <東明王篇>의 構成에 대한 견해는 區區하다. 各 見解의 문제점을 간략히 지적해 보기로 한다.

㉑은 張德順에 의해 이른 시기에 제시된 이후, 李佑成²⁵⁾, 申用浩²⁶⁾, 金鎮英²⁷⁾, 金慶洙²⁸⁾ 등에 의해 踏襲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견해이기는 하다. 그러나, 作品의 끝에 있는 非叙事的 部分을 叙事部分인 類利의 繼位譚과 함께 終章에 넣어 파악하면서도, 作品 머리에 있는 非叙事的 部分에 대해서는 달리 언급하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 점은 終章에 叙事部分과 非叙事的 部分이 혼용되어 있다는 점과 함께 자체내의 一貫性和 妥當性を 잃게 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다.

㉒는 東明王의 一生을 ‘出生’을 경계로 하여 ‘緒頭部’와 ‘行蹟部’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처음・중간・끝이라는 有機的 統一性이 문제될

21) 張德順, 앞의 論文, p. 325.

22) 李金喜, 앞의 論文, pp. 11~29.

23) 전형대, 《이규보의 삶과 문학》(弘盛社, 1983), p. 66.

24) 조동일, 앞의 책, p. 86.

25) 李佑成, 앞의 論文, p. 101.

26) 申用浩, 앞의 論文, pp. 56~57.

27) 金鎮英, 앞의 책, pp. 100~101.

28) 金慶洙, 《李奎報詩文學研究》(亞細亞文化社, 1986), p. 124.

수 있다. 그리고 作品 끝에 있는 非敘事的 部分은 ‘評結部’로 독립시켜 놓으면서도, 作品 머리에 있는 非敘事的 部分은 敘事部分과 구분함이 없이 함께 ‘緒頭部’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㉔은 東明王 一家의 三代記를 解慕漱／東明王・類利로 兩分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有機的 統一性이라는 면에서 볼 때, 分章의 客觀性을 지니기 어렵다. 또, 作品 끝의 非敘事的 部分은 ‘에필로그’로 구분하여 파악하면서도 作品 머리의 非敘事的 部分에 대해서는 달리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점도 그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㉕은 東明王說話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非敘事的 部分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으로 해서 사실상 〈東明王篇〉의 전체적 구성에 대한 견해로 보기 어렵다.

先學들이 本作品의 構成樣相을 살핌에 있어서, 一見 敘事와 非敘事가 뒤섞여 있으면서, 非敘事的 部分이 압박함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여 그것에 대해서는 별달리 주목하지 않거나 敘事部分과 非敘事的 部分을 함께 묶어 파악함으로써 構成樣相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다.

筆者는 이상과 같은 점을 반성하면서, 이제껏 별달리 주목받지 못했던 非敘事的 部分부터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먼저 作品의 머리에 있는 非敘事的 部分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B	元氣判沌渾	원기가 혼돈을 잃애니
	天皇地皇氏	천황씨 지황씨가 되었다
	十三十一頭	머리가 열 셋 혹은 열 하나
	體貌多奇異	그 모습 기이함이 많았다
	其餘聖帝王	그 나머지 성스러운 제왕들도
	亦備載經史	또한 경서와 사기에 실려 있다
	女節感大星	여절은 큰 별에 감응되어
	乃生少昊摯	소호지(少昊摯)를 낳았고
	女樞生顓頊	여추는 전욱을 낳았는데
	亦感璣光曜	역시 북두성(北斗星)의 광채에 감응되었다
	伏羲制牲犧	복희씨는 희생제도를 마련하였고
	燧人始鑽燧	수인씨는 나무를 비벼 불을 만들어냈다
	生黃帝帝祥	명철(堯)이 난 것은 요(堯) 임금의 상서요
	雨粟神農瑞	조(粟)에 비가 내린 것은 신농씨의 상서다
	青天女媧補	푸른 하늘은 여와씨가 기웠고
	洪水大禹理	큰 물은 우(禹) 임금이 다스렸다

C	黃帝將升天	황제(黃帝)가 하늘에 오르려 할 제
	胡髯龍自至	턱에 수염 난 용이 스스로 이르렀다
	太古淳朴時	태고 적 순박할 때는
	靈聖難備記	신령하고 성스러운 것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었는데
	後世漸澆漓	후세에 인정이 점점 경박해져서
	風俗例汰侈	풍속이 지나치게 사치해졌다
	聖人間或生	성인이 간혹 나기는 하였으나
	神迹少所示	신령한 자취 보인 것이 적다.

이상에서 제시된 내용은 B와 C로 兩分될 수 있다. B는 처음·중간·끝이라는 有機的 統一性에 의해 구성되어 있지 않다. 또, 叙事詩는 한 개인의 단면 제시가 아닌 인생의 총체적 모습을 조명해야²⁹⁾ 한다면, B는 中國 神話時代 諸帝王의 개인의 단면을 제시하고 있을 뿐으로 叙事性을 지니고 있는 부분은 아니다. 東明王의 神聖性에 대한 ‘믿음의 當爲性을 제시’하기 위한 유도의 기능을 가진 非叙事的 部分인 것이다.

C는 作者의 所感을 피력한 부분으로서, 이것은 다시 點線을 경계로 하여 兩分될 수 있다. 前者는 過去의 肯定的 狀況에 대한 것이고, 後者는 過去의 否定的 狀況에 대한 것인데, 時制상으로 보아 前者는 後者보다 앞선 大過去이다.

이번에는 解慕漸→東明王→類利的 三代記로 된 叙事部分에 이어 作品 끝에 나오는 非叙事的 部分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A'	我性本質木	①	내 성품 본래 질박하여
	性不喜奇詭		기이하고 괴상한 것 좋아하지 않는다
	初看東明事	㉒	처음에 동명왕의 일을 보고
	疑幻又疑鬼		요술인가 귀신인가 의심하였다
	徐徐漸相涉	㉓	서서히 서로 섭렵하여 보니
	變化難擬議		변화가 주축하여 의논하기 어렵다
	況是直筆文	㉔	하물며 이것은 직필로 쓴 글이라
	一字無虛字		한 글자도 헛된 글자가 없다
	神哉又神哉	㉕	신이 하고도 신이하여
	萬世之所題		만세에 아름다운 일이다
	因思草創君	㉖	생각컨대 창립하는 임금의
	非聖即何以		성신이 아니면 어찌 이루랴

29) 成基玉, <「龍飛御天歌」의 서사적 짜임> 白影 鄭炳昱先生 還甲紀念論叢Ⅱ《韓國詩歌文學研究》(新丘文化社, 1983), p. 156.

B'	劉媪息大澤	유 온이 큰 못에서 쉬다가
	遇神於夢寐	꿈 꾸는 사이에 신을 만났다
	雷電塞晦冥	우뢰 번개에 천지가 캄캄한데
	蛟龍盤怪傀	교룡이 괴이하게 서리있었다
	因之即有娠	인하여 곧 임신이 되어
	乃生聖劉季	성신한 유계를 낳았다
	是惟赤帝子	이것이 적제의 아들인데
	其興多殊祚	일어남에 특이한 복조가 많았다
C'	世祖始生時	세조가 처음 태어날 때
	滿室光炳燿	광명한 빛이 집 안에 가득하였다
	自應赤伏符	절로 적복부에 응하여
	掃除黃巾僞	황건적을 소탕하였다
	自古帝王興	옛부터 제왕이 일어남에
	徵瑞紛蔚蔚	많은 징조와 상서가 있으나
	末嗣多怠荒	끝 자손이 게으르고 거칠음이 많아
	共絕先王祀	모두 선왕의 제사를 끊어뜨렸다
E	乃知守成君	이제야 알겠다 수성하는 임금은
	集蓼戒小墀	신고한 땅에서 작은 일에 조심하며
	守位以寬仁	너그럽고 어질름으로 왕위를 지키고
	化民由禮義	예와 의로 백성을 교화하여
	永永傳子孫	길이길이 자손에게 전하여
	御國多年紀	오래도록 나라를 통치한다.

이상에서 제시된 내용은 A'B'C'E로 4분될 수 있다. A'는 并序의 내용을 詩化한 것과 다름 아니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에서 ㉤까지는 并序와 對應關係에 있는 바, 并序 中에서 對應되는 내용만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논의의 편의상 다음을 A라 칭한다.

A	㉠ 僕嘗聞之 笑曰 先師仲尼 不語姦力亂神 此實荒唐奇詭之事 非吾曹所說
	㉡ 然亦初不能信之 意以爲鬼幻
	㉢ 及三復耽味 漸涉其原 非幻也乃聖也 非鬼也乃神也
	㉣ 況國史直筆之書 豈忘傳之哉
	㉤ 矧東明之事 非以變化神異 眩惑衆目 乃實創國之神迹 則此而不述 後將何觀
	㉥ 是用作詩以記之 欲使夫天下 知我國本聖人之都耳

B'는 中國 漢代 高祖와 光武帝의 神異之事를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作品 머리에 있는 B(中國 上古 神話時代 諸帝王의 神異之事)와 對應關係에 있다.

C'와 E는 作者의 所感을 記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함께 파악할

수 있겠으나, C'는 過去의 狀況에 대한 것이고, E는 未來의 期待되는 狀況에 대한 것이라는 점과 A와 A', B와 B'가 對應關係에 있는데다가, C와 C'도 對應關係에 있다는 점에서 구분하였다. C'도 C와 마찬가지로 點線을 경계로 하여 過去의 肯定的 狀況에 대한 것과 過去의 否定的 狀況에 대한 것으로 兩分될 수 있다. 이 때도 時制상 前者는 大過去이다.

E는 作者가 期待하는 未來의 바람직한 狀況에 대하여 읊은 것으로서, 이 부분과 對應關係로 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상에서 分析・檢討한 結果를 토대로 〈東明王篇〉의 部分들을 順次的 배열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 聖人으로서의 東明王의 神異之事에 대한 믿음의 告白과 믿음에로 이끔

B : 中國 上古 神話時代 諸帝王의 神異之事

C : 過去狀況에 대한 理解

D : 解慕漱—東明王—類例의 三代記³⁰⁾

A' : 草創君으로서의 東明王의 神異之事에 대한 믿음의 告白

B' : 中國 漢代 諸帝王의 神異之事

C' : 過去狀況에 대한 理解

E : 未來狀況에 대한 理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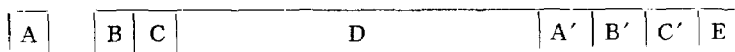
이상의 分析・檢討를 통해서 非敘事的 部分은 압박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대로 相互對應關係에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서 이규보가 非敘事的 部分에 일정한 意味를 부여하면서 그것을 意圖的으로 배열하였을 것이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文學研究는 作品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느냐에 주의를 좁혀야 하고 意味의 表現을 위해 어떤 方式을 취하고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³¹⁾면, 創作意圖나 目的性이 어느 作品보다 강한 本作品의 構成樣相에 대한 檢討는 더욱 深化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는 作品의 實相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作業을 수행하기 위해 앞서 파악한 本作品의 部分들을 圖式化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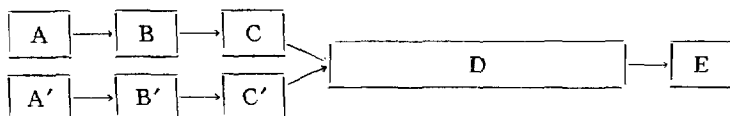
30) 〈東明王篇〉의 敘事內容인 D의 構造는 Ⅱ.2에서 초장・전개부・종장으로 分析되어질 것이다.

31) Wilfred L. Guerin 外 共著, 鄭在浣・金聖坤共譯, 《文學의 理解와 批評》(靑鹿出版社, 1978), p. 59.



〈표 1〉

그런데, 작품이 한 번 성립한 뒤에는, 작품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동시적으로 존재하며, 작품의 부분들의 어떤 것도 〈먼저〉 내지는 〈뒤의〉 것일 수 없기 때문에, 작품 부분들의 질서의 도치를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현상을 얻을 수 있다.³²⁾ 그렇다면, 상기한 圖式은 順次的 秩序이면서 作品의 外的 秩序를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바, 作品의 內的 秩序는 부분들의 倒置를 수행함으로써 찾아질 수 있다. 그것을 圖式化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우리는 이규보가 本作品에서 ‘무엇’을 表現하기 위해 어떤 ‘構成樣相’을 취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關心을 集中시키면서 作品自體를 검토한 결과, 그 構成樣相을 〈표 2〉와 같이 밝혀볼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규보가 표현하고자 했던 그 ‘무엇’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도 論者에 따라서 國家意識, 民族意識 또는 國家意識과 民族意識 등으로 파악하는 등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는 〈표 2〉의 構成樣相이 지니는 意味를 밝혀봄으로써 그 ‘무엇’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를 통해 本作品의 性格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本作品의 構成樣相이 지니는 意味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本作品은 A→B→C→D→A'→B'→C'→E로 진행되는 順次的인 外的 秩序에 의하지 않고, A→B→C→D→E와 A'→B'→C'→D→E의 두 갈래로 진행되는 二重的인 內的 秩序에 의하고 있다. 이럴 때, 각 갈래는 先後・主從關係에 있지 않고 對等한 關係에 있게 되므로 自立的이다. 결국, 本作品이 두 갈래로 진행된다는 것은 이규보가 표현하고자 했던 그 ‘무엇’도 하나가 아니라 둘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이번에는 本作品의 各部分이 수행하고 있는 機能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作品 끝의 非敘事的 部分에 대해서 “끝으로 총괄하는 대목을 두어서 작품

32) Roman Ingarden著, 李東昇譯, 《文學藝術作品》(民音社, 1985), pp. 344~345.

창작을 하기까지의 경위를 다시 밝히고 다룬 내용의 진실성을 다짐”³³⁾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作品의 構成樣相에 주목할 때 그와 같은 견해는 再考되어야 할 것이다.

A·A'를 통해 東明王의 神異之事에 대한 믿음을 告白하면서 天下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이끌고자 하며, B·B'를 통해 東明王의 神異之事에 대한 믿음의 當爲性을 제시하고, C·C'를 통해 믿음에 따라 過去의 狀況을 理解한 바를 기술하고, D를 통해 믿음의 當爲性을 증명하고, 끝으로 E를 통해 믿음에 따른 未來指向의 理解를 기술하고 있다. E는 未來의 期待되는 狀況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나, 결국은 現在狀況에 대하여 窮極的으로 이해한 바를 말한 것과 다름 아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A': 믿음의 告白과 믿음으로 이끌

B·B': 믿음의 當爲性 제시

C·C': 믿음에 따른 過去狀況의 理解
(現在狀況에 대한 理解)

D: 믿음의 當爲性 증명

E: 믿음에 따른 未來指向의 理解
(現在狀況에 대한 窮極의 理解)

우리는 이상의 分析·檢討를 통해서 〈東明王篇〉의 構成樣相과 그 意味를 살피고 나아가 叙事와 非叙事의 各部分들이 수행하고 있는 機能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Ⅲ. 〈東明王篇〉의 性格

〈東明王篇〉의 內的 秩序를 떠받치고 있는 核心的인 意味는 ‘믿음’과 ‘理解’이다. 지금부터는 Ⅱ章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諸要素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짜여서 산출하는 意味를 추출해 봄으로써 本作品의 性格을 해명하고자 한다.

1. 믿음의 內容과 意味

이규보가 A에서 믿음을 告白하고 믿음으로 이끌고자 한 對象은 東明王이 神聖性을 지닌 聖人이라는 점이다.

33) 조동일, 앞의 책, p.87.

그런데, 이규보는 ‘天下’로 하여금 그러한 사실을 믿도록 하자면, 자신의 告白만으로 미흡하기에 믿음의 當爲性을 제시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B는 그와 같은 機能을 수행하고 있다.

총 18句인 B를 의미상으로 파악하면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句~6句는 天·地·人 三皇을 위시한 帝王들의 誕生前의 ‘神異한 徵表’를 나타낸 부분이고, 7句~10句는 女筋과 女樞가 별에 감응되어 小昊와 顓頊을 낳는 ‘神異한 誕生’을 나타낸 부분이고, 11句~16句는 伏羲·燧人·神農·禹임금 등이 이룩한 ‘神異한 行蹟’을 나타낸 부분이고, 17句~18句는 黃帝가 龍을 타고 오르는 ‘神異한 昇天’을 나타낸 부분이다.

B의 총 18句는 개인의 단면을 모아 놓은 集合體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 쉬우나, 의미상으로 4개의 단락으로 파악할 때, 각 단락은 ①神異한 徵表→②神異한 誕生→③神異한 行蹟→④神異한 昇天의 네 단계의 연쇄체로 정리된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이 ①→④로의 연쇄는, 이규보가 中國과 우리 나라 神話時代 聖人の 삶과 그들 傳記의 典型性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말해준다. 이규보는 개인의 삶의 집합을 하나의 연쇄체로 받아들여 그가 이해한 ‘聖人の 一生’의 典型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이규보가 并序인 A에서 “漸涉其源 非幻也乃聖也 非鬼也乃神也”임을 알게 되었다고 告白한 것은, 먼저 聖人の 一生의 典型性을 생각하고 東明王의 一生이 聖人の 一生과 부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B는 이규보가 “漸涉其源”했다고 했을 때의 根源에 해당되는 것일 수 있다.

이처럼 B에서 제시된 믿음의 當爲性은 東明王 一家의 三代記인 D를 통하여 그 當爲性이 증명된다. 즉, ① ‘神異한 徵表’는 解慕漸을 통해, ② ‘神異한 誕生’은 柳花가 해를 품고 朱蒙을 낳는 것을 통해, ③ ‘神異한 行蹟’은 東明王의 神異한 여러 行蹟을 통해, ④ ‘神異한 昇天’은 東明王이 “在位十九年 升天不下莅”한 것을 통해 증명된다. 결국, 東明王의 一生은 聖人の 典型的인 一生과 부합되는 것이기에 聖人으로서의 東明王의 神聖性에 대한 믿음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번에는, A’로부터 진행되는 것을 살펴 보자. A’에서 이규보가 믿음을 告白하고 믿음으로 이끌고자 한 對象은 草創君으로서의 東明王이 神聖하다는 점이다. 이 점은 A’의 마지막 2句인 “因思草創君, 非聖即何人”이라는 표현과, 이어서 나오는 B’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규보는 여기서도 역시 B'를 통해 믿음의 當爲性을 제시하고 있다. B'는 B와 마찬가지로 한 개인의 총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中國 漢代 高祖·光武帝의 개인적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총 18句인 B'를 의 미상으로 파악하면 ① 1句~2句, ② 3句~6句, ③ 7句~10句, ④ 11句~12句의 4단락으로 나누는 볼 수 있다. 이 ①~④는 ①神異한 徵表→②神異한 誕生→③非凡한 成長→④鬭爭에서의 勝利라는 네 단계의 연쇄체로 정리될 수 있다. 그런데, 11句~12句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는 '立國'까지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면, ⑤ 立國을 보태어 다섯 단계의 연쇄체로 재정리할 수 있겠다.

①→⑤의 연쇄체는 이규보가 이해한 神聖스런 草創君의 一生의 典型性을 보여주는 것이다. B'도 B와 마찬가지로 이규보가 "漸涉其源" 했다고 했을 때의 根源에 해당되는 것일 것이다.

이처럼 B'에서 제시된 믿음의 當爲性은 D를 통해 그 當爲性이 증명되는 바, 증명의 내용은 詳述하지 않아도 무방할 듯하여 생략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믿음'이 意味하는 것은 무엇인가? 東明王이 聖人임을 믿고 따라서 天下로 하여금 "我國本聖人之都"임을 믿도록 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高麗가 高句麗의 전국정신과 진취적 기상을 이어 받은 계승자라는 역사계승의식과 함께, 外邦民族과의 관계에서 事大主義를 배격하고 民族自主意識을 배양하고자 하는 作家意識을 추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전으로 이규보가 살다간 武臣亂을 전후한 時期는 高麗史全般을 통해서 볼 때 혼란이 연속된 暗黑期였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東明王篇〉의 믿음의 내용은 각도를 달리해 해석할 수 있다. 사람들의 한 時期의 停滯와 汚染이 발생이 되고 그리하여 刷新이 필요할 때마다 神話的 原型이 반복된다³⁴⁾는 M. Eliade의 말과, 혼돈과 不安, 무질서와 어둠이 다시 또 한번 文化英雄을 부른다³⁵⁾는 사실을 생각할 때, 〈東明王篇〉은 어둡고 혼란한 當代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民族精神을 蘇生시키고 發揚시키려는 의도에서 창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東明王篇〉의 敘事部分인 D를 B의 ①→④나 B'의 ①→⑤의 연쇄체로 파악할 때, 類利的 繼位譚은 아무런 意味를 지니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東明王→類利로 서술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東明王篇〉 전체의 叙

34) 金烈圭, 앞의 책(1983), p.365.에서 再引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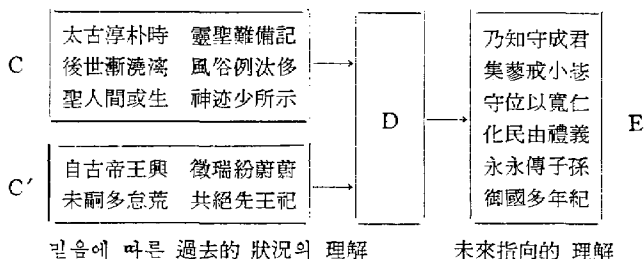
35) ———, 같은 책, 같은 곳.

事的 機能의 비중으로 보아 類利는 상대적으로 단역의 자리에 있게³⁶⁾ 되므로 詩化과정에서 그것이 대폭 削除되고 있는 것이지만, 東明王→類利로 서술됨으로 해서 그것은 意味를 지닌다. 類利의 繼位譚을 東明王說話內에서만 파악하여 東明王→類利의 경우를 叙述構造上의 問題點으로 파악하는 분³⁷⁾도 있으나, 인과관계를 내포하는 연대기적 전후로 기준을 삼으면 당연히 東明王→類利로 서술되어야 한다.³⁸⁾ 그렇게 서술되었을 때, 類利의 繼位譚은 ‘믿음에 따른 理解’의 면에서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2. 理解의 內容과 意味

本作品이 $A \rightarrow B \rightarrow C \rightarrow D \rightarrow E$ 와 $A' \rightarrow B' \rightarrow C' \rightarrow D \rightarrow E$ 의 두 갈래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믿음의 當爲性 제시’(B, B')와 ‘믿음의 當爲性 증명’(D)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듯이 보이는 $C \cdot C'$ 가 그들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C \cdot C'$ 를 $B \cdot B'$ 와 D 사이에 둔 사실은, 本作品이 東明王의 神聖性에 관하여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當代의 現實에 관하여 ‘理解’한 것까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意義를 지닌다. 즉, 그와 같은 배경은 讀者들이 $C \cdot C'$ 를 意識하면서 D를 받아들여 作者가 이해한 E의 내용을 충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意圖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理解’의 부분인 $C \cdot C$ 와 E를 따로 떼어 놓고 접근해 나가기로 한다.



36) _____, 앞의 論文(1986), p. Ⅱ.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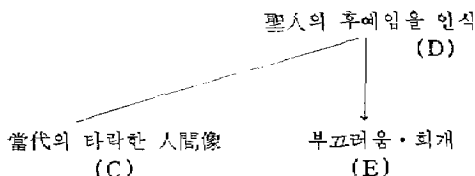
37) 朴斗抱, 앞의 論文(1968), p. 23.

38) 金烈圭, 앞의 論文(1986), p. Ⅱ. 44.

1) C→D→E의 理解의 內容과 意味

C·C'는 過去狀況에 대해서, E는 未來狀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그것은 표면상의 것일 수 있다. “혀가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눈물 내지 못하는”³⁹⁾ 當代의 現實 하에서 政治·社會的 問題를 舉論 批判하자면 過去의 歷史的 事實을 빌어오는 間接的인 方法을 사용하거나⁴⁰⁾, C·C'·E 처럼 過去와 未來狀況으로 돌려 이야기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C·C'·E를 當代의 狀況으로 바꾸어 圖式化하면 다음과 같다.



C는 人情이 경박해지고 風俗이 지나치게 奢侈해진 當代的 타락한 風潮를 批判하면서, 그와 같이 타락한 人間像을 비판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이규보는 本作品을 짓고 난 이듬해에 지은 七絕 43首의 總集으로 된 <開元天寶詠史詩>에서 警戒類 28首 中 ‘君王의 奢侈와 頹廢行爲’, ‘高官 및 富豪의 奢侈와 頹廢行爲’에 대하여 9首나 할애할 정도로 타락한 社會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⁴¹⁾ 이규보는 C→D→E에서 讀者들로 하여금 C를 통해 當代的 타락상을 直視하게 하고, D를 통해 聖人の 後孫임을 認識하게 한 다음, E를 통해 聖人の 後孫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悔改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그와 같이 타락한 社會相은 어디에서 緣由하는가? 이규보는 “그 당시의 善惡이 다 임금의 영도에 의하여 漸染된 것”⁴²⁾이라는 立場에서 그 모든 責任을 君王에게 돌리고 있다. 그렇다면, 守成君은 너그럽고 어짐으로 王位를 지키고 禮와 義로 백성을 教化해야 한다는 E의 언급은 사실 그렇지 못한 當代的 君王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9) 有舌不可掉 有眼不可泣 <感興> 1,2句. 《東國李相國集》全集 卷 8.

40) 이규보는 《東國李相國集》全集 卷 4에 수록된 <開元天寶詠史詩>에서 이러한 方法을 사용하고 있다.

41) 拙稿, <李奎報의 開元天寶詠史詩 研究> 《嶺南語文學》第11輯 (嶺南語文學會, 1984), p.123. 참조.

42) 其時善惡 皆上化之漸染, <開元天寶詠史詩> 并序.

이러한 사실에서 볼 때, 〈東明王篇〉과 〈開元天寶詠史詩〉는 取材된 史實과 形式의 相異에도 불구하고 그 創作意圖는 無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규보는 本作品에서 當代의 타락상을 포괄적으로 지적하면서 君王을 警戒한 데 디홉함을 느끼고 이듬해에 具體的인 史實을 들어 보다 精確하게 當代의 문제를 진단하고자 〈開元天寶詠史詩〉를 지었다고 본다. 이 점에서 두 作品은 相互關聯性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2) C'→D→E의 理解의 內容과 意味

이규보는 E의 첫 머리에서 “이제야 알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무엇’을 理解할 수 있게 된 것은 東明王의 神聖性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너희는 믿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한다.”⁴³⁾는 말이 있듯이 理解의 前提條件은 믿음이다. 그렇다면 東明王의 神異之事를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음으로 해서 이규보가 이해한 그 ‘무엇’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니, 이규보가 그것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이해하게 된 그 ‘무엇’의 正體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信과 不信의 內容差異를 고려해보는 方法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규보가 믿은 東明王의 神異之事를 수록하고 있는 《舊三國史》의 〈東明王本紀〉⁴⁴⁾와 金富軾이 大異之事라 하여 믿지 않고 크게 省略한 《三國史記》의 高句麗本紀 第一, 始祖 東明聖王條의 기록을 ①缺乏의 狀況→②缺乏의 克服→③缺乏의 解消・止揚이라는 民間傳承의 叙事談의 基本單位에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舊三國史》에서는 解慕澣・東明王・類利의 三代가 자기 ①→②→③의 과정을 거친다.

解慕澣의 경우 缺乏의 對象은, 解慕澣가 柳花를 보자 “得而爲妃, 可有後胤”이라고 한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後嗣이다. 解慕澣는 河伯과의 神統述 시험을 통해 缺乏을 克服하고, 河伯으로부터 天帝子로서 인정받고 柳花와 成婚함으로써 缺乏을 解消・止揚하게 된다.

43) 舊約聖書 죄람어 번역본 所載, 요셉 달령어著, 張益譯, 《그리스도 信仰》(분도出版社, 1974), p. 45. 再引用.

44) 현재 《舊三國史》가 전해오지 않는 관계로 〈東明王本紀〉의 완전한 모습을 알 수 없지만, 朴斗抱교수가 〈東明王篇〉의 分註들을 輯錄하여, 그 이음이 잘 안되는 대목을 補完해 復原을 시도한 것을 그 資料로 삼는다. 朴斗抱, 앞의 論文(1968), pp. 8~13.

東明王의 경우 缺乏의 對象은, 朱蒙이 그 母에게 “我是天帝之孫 爲人牧馬 生不如死 欲往南土造國家”라고 한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國家이다. 東明王은 金蛙王의 王子들의 覬覦을 克服하고, 立國한 뒤에 沸流王과의 투쟁을 거쳐 國家의 기틀을 튼튼히 함으로써 缺乏을 解消・止揚하게 된다.

類利의 경우 缺乏의 對象은 王位인데, 父王의 遺物인 칼의 探索과 父王의 神聖시험을 통해 缺乏을 克服하고, 王位를 繼承함으로써 缺乏을 解消・止揚하게 된다.

이에 비해 《三國史記》에서는, 解慕漱의 경우 ①, ②, ③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⁴⁵⁾, 東明王의 경우는 ①이 모호함으로 해서⁴⁶⁾ ②, ③이 有機性을 지니지 못하며, 類利의 경우는 ①, ②, ③이 다 나타나 있으나, 弱化되어 있다.

살펴 본대로, 《舊三國史》의 경우는 三代가 각기 ①→②→③의 과정을 거치는 데 비해 《三國史記》는 그렇지 못함으로 해서 이렇다하게 이해할 만한 것은 없다. 이제부터 《舊三國史》의 경우를 分析하기로 한다.

각 세대는 독립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朱蒙을 정점으로 하여 단서→성취→보완의 통합적인 서사구조를 지니고 있다⁴⁷⁾는 見解는 一見 타당한 듯해도 문제가 없지 않다. 각 세대가 ‘결핍→극복→해소’든, ‘문제(과제)→해결(성취)’이든 독립성을 지닌 것이긴 해도 단서→성취→보완의 서사구조에서 解慕漱를 ‘단서’로 파악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解慕漱의 경우의 缺乏의 對象은 어디까지나 後嗣이다. 東明王과 類利의 경우의 缺乏의 對象은 國家와 王位로서 모두 國家와 관련된 것이다. 後嗣를 보는 것이 國家建設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後嗣 그 자체가 성취→보완으로 이어지는 探索의 各體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단서’도 國家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Greimas의 〈構造意味論〉⁴⁸⁾에 따라 《舊三國史》의 〈東明王本紀〉를 초장의 상황(도입부), 변형의 생성(전개부), 종장의 상황(종결부)로 나누어 분석하면서 위에서 제기된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45) 解慕漱에 관한 내용은 “其舊都有人 不知所從來 自稱天帝子解慕漱 來都焉……時有一男子 自言天帝子解慕漱 誘我(柳花) 於熊心山下 鴨綠邊室中私之 即往不返” 정도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46) 金蛙王의 王子들이 朱蒙을 謀殺하려고 하자, 朱蒙母가 “國人將害汝 以汝才略 何往而不可 與其遲留而受辱 不若遠適以有爲”라고 말하고 있으나, 缺乏의 狀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47) 金烈圭, 앞의 論文(1986), pp. Ⅱ. 42~Ⅱ. 43.

48) 이 점에 대해서는 주로 서인석의 《성서와 언어과학》(성광출판사, 1984), pp. 256~268. 을 참고하였다.

조장의 상황(도입부)

조장에는 모종의 缺乏이 나타나는데, 이야기의 발동을 거는 缺乏의 狀況은 무엇인가? 누구에게 무엇이 缺乏되어 있는가? 등의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이야기의 발동을 걸고 있는 것은 天帝이다. 天帝의 경우 缺乏의 對象은, 夫餘의 정승 阿蘭弗에게 “將使我子孫 立國於此 汝其避之”라고 말한 대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國家이다. 그렇다면, 그 缺乏은 ‘天帝의 일’이 國家建設을 통해 세상에 顯示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意味에서 본다면, 앞에서 말한 ‘단서’는 解慕漱가 아니라 天帝라고 봐야 옳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야기의 발동을 거는 缺乏의 상황이 제시된 ‘天帝’에 관한 부분이 조장(도입부)이 된다. 따라서, 解慕漱는 作品 속에서 독자성을 지닌 인물이라기보다 주인공 동명왕의 神聖性を 부각시키기 위해 동원된, 일종의 배경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변형의 생성(전개부)

a) 資格試鍊: 영웅은 첫 시련을 겪게 되는데, 이 시련을 성공리에 끝마치게 되면 영웅(主體)으로서 自格을 인정받게 된다. 東明王의 경우도 장차 거기서 태어날 알이 버려지는 첫 시련을 겪게 되지만, 모든 짐승들에 의해 보호받음으로써 天帝의 子孫임을 인정받게⁴⁹⁾ 된다. 그런 다음, 東明王은 자라서 缺乏의 대상을 찾아 길을 떠난다.

b) 本格試鍊: 영웅은 본격적이며 결정적인 투쟁의 主役과 목숨을 건 투쟁을 하게 된다. 東明王도 夫餘 王子들의 핍박으로 南行하다가 엄제수에서 물고기, 거북 등의 도움으로 적의 추적을 피해 渡下함으로써 本格試鍊을 무사히 끝마친다.

c) 榮光試鍊: 영웅은 마지막으로 영광시련을 치러야 하는데, 이 시련을 성공리에 끝마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된다. 東明王도 沸流王과의 武術의・呪術의 투쟁을 통해 天帝의 子孫임을 인정받게 된다. 이를 통해 東明王은 國家의 기틀을 튼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榮光試鍊이라 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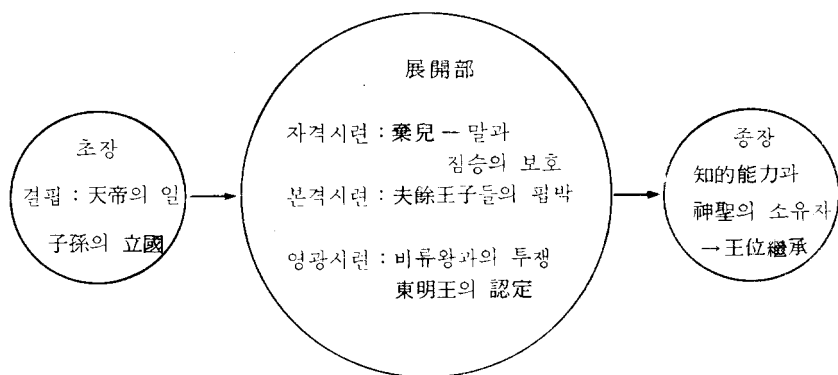
49) 朱蒙이란 아이를 버린 이유에 대해, 그가 天神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얻기 위해서였다고도 하며 出石誠彦, 《支那上代 思想史 研究》 pp. 94~95. 李玉, 《高句麗民族形成과 社會》(教保文庫, 1984), p. 159. 再引用. 아버지가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는 시련을 받아야 했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李在秀, 《朱蒙傳說考》《論文集》人文社會科學編 8輯 (慶北大學校, 1960), p. 74.

다.

종장의 상황(종결부)

여기서는 초장의 결핍이 메꾸어지고 새로운 질서가 회복된다. 東明王은 天帝의 缺乏對象인 國家를 세운 뒤, 知的 能力과 神聖性을 소유한 類利에게 王位를 물려주는 새로운 轉機를 마련한다.

이상에서 分析한 내용을 圖式化하면 다음과 같다. 이것이 곧 〈東明王篇〉의 敘事의 構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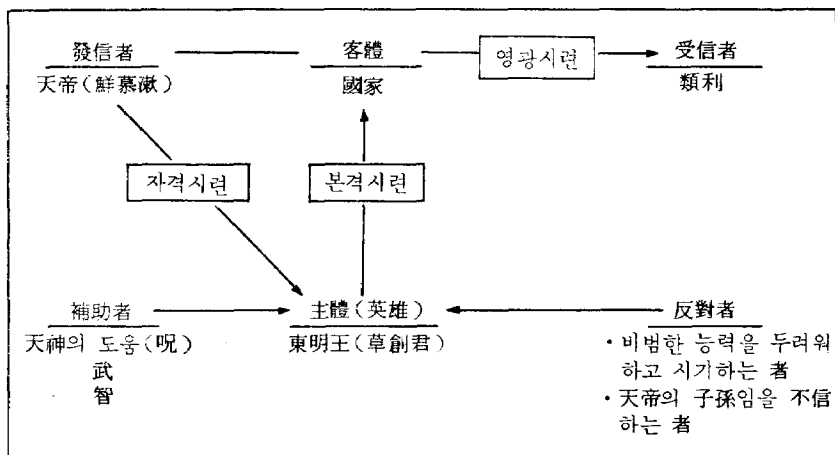


〈표 3〉

〈표 3〉의 내용과 거기에서 제시된 세 가지 형태의 시련은 〈표 4〉와 같은 방식으로 Greimas의 行役者의 圖式 안에 배치될 수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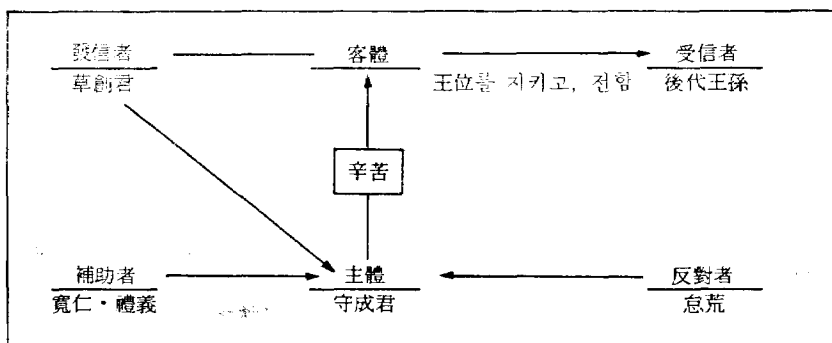
發信者는 설화에 발동을 거는 行役者로서, 그는 探索의 客體(缺乏되어 있는 對象)를 규명한다. 客體는 찾아와야 할 대상을 지적한다. 主體는 發信者의 호소에 응답하여 缺乏된 客體를 찾아오겠다고 나서는 자이다. 反對者는 탐색의 행위에 방해를 놓는 자이다. 補助者는 탐색을 쉽게 하도록 도와주는 자이다. 受信者는 이야기의 끝에 가서 탐색의 客體를 선물로 받는 자이다.

앞에서, C'를 D 다음에 두지 않고 그 앞에 둔 것은, 讀者들이 C'를 意識하면서 D를 받아들여 作者가 理解한 E의 내용을 충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意圖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표 4〉

이 구보가 本作品의 敘事內容인 D의 構造를 〈표 3〉과 같이 받아들여서 〈표 4〉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 그가 C'→D→E를 통해 이해한 내용은 결국 무엇일까? 그것을 Greimas의 行役者的 圖式에 배치시켜 보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표 5〉

이규보가 E에서 “이제야 알겠다”고 했을 때의 理解하게 된 內容은 결국 <표 5>이다.

그렇다면, <표 5>는 결국 무엇을 意味하는 것인가? <표 5>는 一般의이며 普遍的인 眞實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규보는 이것을 통해 具體的인 문제 즉, 發代的 政治眞實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高麗史 全般을 통해서 볼 때 이규보(1168~1241)가 살다간 武臣亂을 전후한 時期는 政治面에서 계급 자체 내의 相剋, 지방 대 중앙의 反旗, 계급 대 계급의 鬭爭 등으로 인해 下剋上의 風潮가 국내를 휩쓸게 됨에 따라 政權은 쇠미해지고, 秩序는 파괴되고, 土地制度는 문란해지는 등 혼란과 암흑기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이 貴族社會 내부의 모순은 시간이 갈수록 심하여지더니, 毅宗이 ‘太王好文之主’란 칭호를 주며 아첨하는 小文臣輩 및 宦臣・嬖臣들에 둘러싸여 享樂生活에 도취하여 失政을 저지름에 이르러 마침내 1170년에 武臣亂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武臣들은 각자의 私欲으로 인해 20여년간 서로 간의 연속된 政權爭奪戰을 벌리다가 이규보가 29세되던 1196년(明宗 26년)에 가서야 崔忠獻에 의해 終止符를 찍게 된다.

그러므로, 이규보가 <東明王篇>을 창출한 26세 되던 1193년까지만 해도 高麗의 국가・사회는 武臣亂의 와중에서 중앙정치의 혼탁, 지방관리의 苛歛誅求, 계속되는 民亂 등으로 극도의 혼란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누구보다 투철한 作家意識을 지닌 이규보는 그와 같은 當代的 現實을 외면하지 않고 直視하면서 혼란한 時代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니 <東明王篇>의 ‘理解’가 意味하는 것은 그와 같은 각도에서 찾아질 수 있다.

이규보는 <표 5>를 통해서, 天帝의 子孫인 東明聖王이 세운 高句麗를 계승한 高麗의 君王들은 怠荒을 멀리하고 寬仁・禮義로써 王位를 지켜 後代王孫에게 王位를 전하는 守成君의 임무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怠荒하여 失政을 저지름으로써 王位를 수호하지 못하고 王朝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 그것은 결국, 국내질서를 회복하고 王朝를 수호함으로써 난해한 시대를 극복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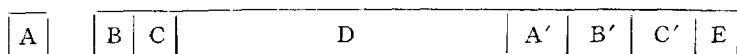
그러므로, 앞에서 살펴 본 ‘믿음’의 意味와 여기서 살펴 본 ‘理解’의 意味를 아우를 때 <東明王篇>의 性格은 밝혀지게 된다. <東明王篇>은 民族意識이나 國家意識의 어느 한 쪽에 경도되어 나온 작품이 아니라, 국내의 위태로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民族精神을 發揚하고 國家意識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 두 측면을 수렴하는 데서 나온 작품이라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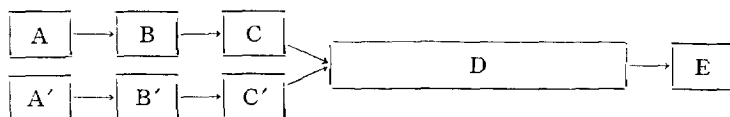
IV. 맺 음 말

本稿에서는 〈東明王篇〉作品 자체가 지닌 實相을 파악하기 위해 하나의 有機體로서의 作品의 構成樣相을 살핀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本作品의 諸要素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작여서 산출하는 意味를 추출해 봄으로써 本作品의 性格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考察한 바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東明王篇〉의 構成樣相을 살피기 위해 일차적으로, 既存의 研究에서는 별달리 주목하지 않았던 作品의 非敘事的 部分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 결과, 敘事部分(D) 앞 뒤에 위치한 非敘事的 部分들은 그것들 대로 A·A', B·B', C·C' 등으로 相互對應關係에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그것들을 圖式化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것은 作品의 順次的 秩序이면서 作品의 外的 秩序를 말해주는 것인 바, 作品 部分들의 질서를 倒置시켜 봄으로써 새로운 현상 즉, 作品의 內的 秩序를 찾아낼 수 있었다. 그것을 圖式化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本作品은 A→B→C→D→A'→B'→C'→E로 진행되는 順次的 秩序에 의하지 않고, A→B→C→D→E와 A'→B'→C'→D→E의 內的 秩序에 의해 두 갈래로 진행되는 構成樣相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각 부분들이 수행하고 있는 機能에 대해서 살펴 본 바, A·A': 믿음의 信白과 믿음에로 이끔, B·B': 믿음의 當爲性 제시, C·C': 믿음에 따른 過去狀況의 理解(現在狀況에 대한 理解), D: 믿음의 當爲性 증명, E: 믿음에 따른 未來指向의 理解(現在狀況에 대한 窮極的 理解)임을 알았다.

(2) 이규보는 并序인 A에서 東明王이 神聖性を 지닌 聖人이라는 점에 대해 믿음을 告白한 뒤, 天下로 하여금 그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 B를 두고 있다. B는 中國 上古 神話時代 諸帝王의 개인의 단면을 모아 놓은 集合體에 지나지 않는 듯하지만, 그것은 ①神異한 徵表→②神異한 誕生→③神異한 行蹟→④神異한 昇天이라는 네 단계의 연쇄체로 정리될 수 있다. 이러한 ①→④의 연쇄체를 통해, 이규보는 자신이 이해한 ‘聖人の 一生’의 典型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B에서 제시된 믿음의 當爲性は D에서 東明王의 一生이 聖人の 典型的인 一生과 부합된다는 사실을 통해 그 當爲性이 증명된다.

그리고, 이규보는 A'에서 草創君으로서의 東明王이 神聖하다는 점에 대해 믿음을 告白한 뒤, 그러한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 B에서 中國 漢代 高祖·光武帝의 개인적인 단면을 ①神異한 徵表→②神異한 誕生→③非凡한 成長→④鬪爭에서의 勝利→⑤立國의 다섯 단계의 연쇄체로 파악하여 믿음의 當爲性を 제시하고 D에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믿음의 當爲性 제시’(B·B')와 ‘믿음의 當爲性 증명’(D) 사이에 있으면서 그것들과 관련이 없는 듯이 보이는 C·C'는 本作品이 東明王의 神聖性에 관한 것에 머무르지 않고 當代의 現實에 관하여 理解한 것까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

(3) 그러므로, 〈東明王篇〉의 內的 秩序를 떠받치고 있는 核心的인 意味는 ‘믿음’과 ‘理解’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먼저, 믿음의 內容과 그 意味를 살펴본 결과, 本作品은 어둡고 혼란한 當代의 現實을 극복하기 위해 民族精神을 蘇生시키고 發揚시키려는 의도에서 창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理解의 內容과 그 意味를 살펴본 결과, 本作品은 파괴된 국내질서를 회복하고 王朝를 수호함으로써 난해한 시대를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창작되었음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本作品은 國內의 위태로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民族精神을 發揚하고 國家意識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 民族意識과 國家意識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수렴하는 데서 나온 作品이라고 본다.

그리고, 分析과정에서 本作品의 叙事的 構造를 초장(도입부), 변형의 생성(전개부), 종장(종결부)를 통해 밝혀볼 수 있었다.